

선두권도 하위권도 '사생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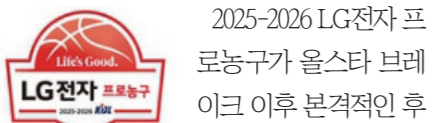


문유현

이선일바노

이정현

남자 프로농구 후반기 싸움 불만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본격적인 후반기 레이스를 앞냈다. 정규리그 우승과 4강 플레이오프(PO) 직행을 두고 벌어질 치열한 선두권 다툼이 팬들의 관심을 끈다.

6강 윤곽은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하위권에서도 꼴찌를 피하기 위한 그들만의 사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위 창원 LG는 2위권 팀들의 거센 추격에 맞서 선두를 수성해야 한다.

시즌 내내 유일하게 연패가 없던 LG는 하필 올스타전 직전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서울 SK에 연달아 져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채 휴식기를 맞았다.

LG가 연패당하면서 순위표엔 2위 안양 정관장, 3위 원주 DB, 4위 서울 SK까지 모두 한 경기 차로 좁혀지게 됐다.

LG는 23일 오후 7시 부산 KCC와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올 시즌 KCC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둔 자신감을 토대로 연패 탈출과 선두 지키기에 나선다.

아센 마레이가 골 밑을 든든하게 지키기는 하지만,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

6강까지 윤곽은 거의 정해져 1위 LG~4위 SK 1경기차 박빙 LG, 2위권 팀 추격 저지에 총력

던 아시아 쿼터 칼 타마요의 부상이 무엇보다 아쉽다.

국가대표 가드 듀오 양준석·유기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1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정관장과 DB는 21일 각각 6위 수원 kt, 5위 KCC를 상대로 후반기 첫 승리를 노린다.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경기당 71.1실점을 기록 중인 2위 정관장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상위권을 유지할 계획이다.

엄청난 점프력으로 고공 플레이를 펼치는 아시아 쿼터 렌즈 아반도와 변준형의 부상이 아쉽지만, 첫 번째 옵션 외국인 선수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국가대표 가드 박지훈을 비롯해 전반기 막판 핵심 전력으로 거세한 슈퍼 루키 문유현을 앞세워 선두 탈환을 노린다.

정관장에 맞서는 kt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조엘 카글랑안이 전방 심자인데 파울로 시즌 아웃됐고, 하윤기도 발목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발뒤꿈치 통증으로 두

7위 소노·10위 삼성 1.5 경기차 "꼴찌 망심만은 피하자" 배수진 경기마다 자존심 건 혈투 예고

달 넘게 결장 중인 간판 가드 김선형의 복귀를 더욱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신인 가드 강성욱이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베테랑 김선형이 복귀한다면 경기 운영이 더욱 수월해질 터다.

7위 고양 소노에 4.5경기 앞서 그나마 6강 PO 등 순위 싸움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은 kt에 위안거리다.

DB는 전반기 막판 과속의 7연승을 달리며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었고, 올스타전을 앞두고 연패당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LG와는 2경기, 정관장과는 1경기 격차에 불과해 언제든지 흐름을 타면 단숨에 선두를 넘볼 수 있다.

2023-2024시즌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이선 일바노가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욱 기세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점이 DB로서는 믿을 구석이 있다.

DB와 후반기 첫 경기를 치를 KCC는 kt에 한 경기 차로 쫓긴다.

호화 라인업을 꾸리고 이상민 감독을 선

임해 시즌 전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힌 것이 무색하게 순위표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용·허훈 '허형제'와 송교창, 최준용 등 KCC가 자랑하는 핵심 멤버들이 모두 부상자 명단을 오가며 완전체 전력을 제대로 가동한 적이 없는 탓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코트에 복귀한다면 어느 팀보다 막강한 전력을 꾸려 후반기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DB를 한 경기 차로 맹추격하는 서울 SK는 시즌 초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최근 세 달간 연패는 한 차례뿐이고, 3연승과 2연승을 각 세 차례씩 달리면서 빠른 페이스를 보였다.

SK는 22일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후반기 첫 경기에서 올 시즌 네 번째 3연승에 도전한다. 7~10위 네 팀은 후반기 그들만의 눈물겨운 탈꼴찌 싸움을 벌인다.

7위 소노와 10위 서울 삼성의 격차는 1.5경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스타전 MVP 내이던 나이트와 토종 에이스 이정현이 팀을 쌍끌이하는 소노는 23일 안양 원정을 떠나 정관장과 맞붙는다.

현대모비스는 22일 SK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꼴찌 삼성은 같은 날 밤 경기 차로 앞서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운명의 '꼴찌 대결'을 펼친다.

글·사단연합뉴스

오명진, 연봉 261% '경충'

두산, 선수단 연봉 계약 끝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026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9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팀내 인상액 및 인상률 1위는 내야수 오명진이 차지했다.

오명진(사진)은 지난해 3100만 원에서 8100만 원이 오른 1억1200만 원에 계약했다. 연봉 인상률은 무려 261.3%다.

2001년생 오명진은 지난해 시범경기 타율 1위(0.407)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고, 정규시즌에서는 107경기에 나와 타율 0.263, 홈런 4개, 41타점, 도루 5개를 기록했다.

또 내야수 박준수도 3000만 원에서 3900만 원 늘어난 6900만 원에 사인했다. 인상률은 130%다.

2024년 신인왕 투수 김택연은 1억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인

상된 2억2000만 원(인상률

두산 2026시즌 연봉 계약 (단위: 원)

선수명	25년 연봉	26년 연봉	인상률(%)
김택연	1억4000만	2억2000만	57.1
박치국	1억1000만	1억8700만	70.0
최승용	8500만	1억5500만	82.4
박신지	3200만	7000만	118.8
최민석	3000만	6300만	110.0
양재훈	3000만	4700만	56.7
오명진	3100만	1억1200만	261.3
박준수	3000만	6900만	130.0
안재석	4300만	6700만	55.8
박지훈	3240만	5200만	60.5
임중성	3100만	4500만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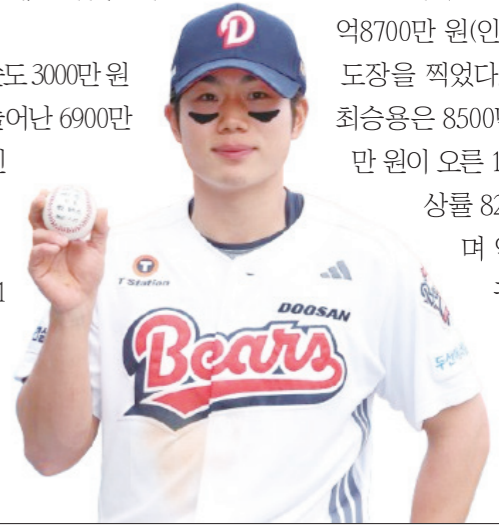
자료=두산 베어스

57.1%)에 계약했고, 투수 박치국은 1억 10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 오른 1억8700만 원(인상률 70.0%)에

도장을 찍었다. 이 밖에 투수 최승용은 8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오른 1억5500만 원(인상률 82.4%)에 사인하

며 역대 연봉에 복귀했다.

두산 선수단은 23일 호주로 스프링캠프를 떠날 예정이다.



한국 축구 FIFA 랭킹 22위 유지... 일은 19위

한국 축구가 새해 처음 발표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2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FIFA가 20일(한국시간) 발표한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지난달과 같은 자리인 22위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2일 순위 발표 이후 A매치를 치르지 않아 랭킹 포인트도 1천 599.45점 그대로였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22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 중에서는 일본(19위), 이란(20위)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다. 일본은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졌고, 이란은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

6월 개막하는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을 멕시코는 한 계단 하락한 16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 계단 오른 60위에 자리했다.

세계 정상급 국가들의 순위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페인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킨 가운데 2~7위도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순으로 유지됐다. 다만, 최근 모로



2026년 1월 FIFA 랭킹 톱 25. 포커스포츠 SNS 캡처

코에서 막을 내린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성적이 반영돼 아프리카 팀들의 순위가 요동쳤다. 특히 대회 우승국 세네갈은 한 계단 오른 60위에 자리했다.

세계 정상급 국가들의 순위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페인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킨 가운데 2~7위도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순으로 유지됐다. 다만, 최근 모로

코에서 막을 내린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성적이 반영돼 아프리카 팀들의 순위가 요동쳤다. 특히 대회 우승국 세네갈은 한 계단 오른 60위에 자리했다.

아프리카 국가 중 FIFA 랭킹이 가장 높은 모로코도 네이션스컵에서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으나 3계단이나 상승해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